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 진 오 의원



“세계적인 스포츠행사 개최지 위상에 맞는 체육정책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과
대전시·교육청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시의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2일 벨기에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을 비롯하여 충청권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제규모의 스포츠행사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서는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5대 시정전략을 선포하셨고 그중에서 대전을 전국 최고 생활체육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대전시정의 수많은 정책 중 시민의 건강한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체육정책 분야가 핵심시정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제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일류도시 대전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전문체육 육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10월 13일 울산에서 개최되었던 전국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대전이 종합 몇 위의 성적을 거두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종합 1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전직할시가 출범한 1989년 이래 제일 낮은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올해 개최된 전국체전을 포함한 과거 5년간의 성적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5년 전보다 성적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출전 분야별로 보시면 고등부가 이전 경기보다 23.7% 상승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대학부와 일반부의 성적이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체전 성적표를 보면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개최지 명성에 맞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시장님, 5년 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본 의원은 대전시민들과 함께 대전출신 선수가 경기에 뛰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대전시가 스포츠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맘껏 뛸 수 있는 체육시설과 우수한 인재 발굴은 물론 선수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지도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이 세 가지 정책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후보시절에 많은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대전시민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1.49㎡로 제가

지금 이만큼 양팔을 벌린 면적에 불과합니다.

이 면적은 전국 4.51㎡의 3분의 1 수준이고 2014년 공공체육시설 면적 1.41㎡에서 변화가 없는 면적입니다.

또한 2020년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수와 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이며, 2019년도와 비교하면 대전시는 고작 2개의 시설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민은 물론 전문체육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나마 조성된 시설들은 경기장만 덩그러니 있어 이용자들이 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반쪽짜리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으로 한밭종합운동장이 철거되면 대전시민은 물론 전문체육인들의 훈련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우려가 우려로 끝나길 바랐지만 대전시의 열악한 체육환경이 현실이 되었음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를 대전시와 대전체육회가 어렵게 영입했지만 훈련장소가 마땅치 않아 제대로 훈련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78년 전통의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전용 연습장이 없어 수개월째 충남대 북부운동장, 안영생활체육공원, 한밭대 운동장 등을 떠돌고 있고 육상선수들 또한 연습할 공간이 없어 지역대학 운동장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년 뒤 치러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종목별 경기 총 30개 중에 대전은 4개

경기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이긴 하지만 대전광역시가 고작 4개 경기장에 수영, 펜싱, 축구 종목만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 이마저도 1개 경기장은 건설 예정인 서남부종합스포츠단지 내 경기장입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선수촌은 대전을 제외한 세종시와 충북 충주, 충남 보령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물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사항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과 같은 각종 인프라 시설물은 한번 조성하게 되면 몇십 년을 거쳐 대대로 다음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성계획에 따라 설계단계는 물론 공사과정, 운영과 관리의 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높이뛰기로 은메달을 획득한 대덕구 출신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우상혁 선수가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입단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포츠계에서는 육상 스카우터들에게 대전은 좋은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텃밭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훈련 중인 전문체육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4,192명보다 1천여 명 가까이 감소해서 3,279명입니다.

이는 대전시의 가까운 미래, 5년 뒤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대전시민이 응원할 지역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데에는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선수들이 안전하게 뛸 수 있는 시설은 물론 그에 걸맞은 각종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전시가 그동안 전문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전문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체육전문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되어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총 44명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2회에 걸쳐 대전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도사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사 모두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었으며, 22년째 근무 중인 지도사의 급여가 고작 28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2022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12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과 예산 총 1,090억여 원 중 회원단체 및 선수 육성사업은 불과 75억입니다.

이 금액에는 선수 육성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선수 역량에 투입되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대전시의 체육진흥과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체육진흥과 전체 예산 중 체육선수 육성과 관련한 예산은 평균 8.1%였습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세계적인 스포츠행사를 유치하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체육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전만의 전략과 정책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실업팀도 없고 그동안 전문체육 지원 또한 열악해서 최근에는 선수들이 편안하게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연히 전문체육선수들은 진로가 막히고 지역의 인재들이 대전을 등지고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전문체육인 육성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문체육인들의 운동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방안과 전문스포츠 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습적으로 신뢰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상이 긍정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좌절과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선 8기가 출범되면서 교육청과 시청 간의 불협화음으로 시민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단 민선 8기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는 물론 교육청 등의 행정은 늘 행정집행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 관련 규정에 따랐다, 교육부 때문이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대전시민을 실망케 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갑천 친수구역 및 천동 3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동부 학교군을 변경하면서 학교 폭이 넓어져 지역의 학생들이 기존 학교보다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교육청은 학교신설 억제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갑천 친수 2구역의 호수초등학교는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서 모듈러방식으로 교실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유성구 용산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등교거부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도마·변동 및 복수 2구역 재개발로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요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개발예정인 세대 수만 보아도 어느 정도 학생수요와 과밀학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8구역은 1,881세대로 현재 70% 정도 입주했고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복수초로 단체전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 입주도 되지 않았고 신혼부부 특공세대가 많아 영유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9구역도 818세대로 개발예정이고 9구역까지 입주한다면 복수초는 과밀학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복수초 바로 앞 복수 2구역도 905세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천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구역 1,558세대, 12구역 1,688세대, 13구역 3,210세대가 개발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충분히 과밀학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현재 도마·변동 8구역 아이들의 통학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도마동부터 복수초로 등하교하는 우리 아이들은 가파른 경사로뿐만 아니라 보차 구분 없는 보행로와 위험한 도로를 지나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8구역에서 도보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 굴다리를 지나야 하는 곳입니다.

굴다리 폭이 상당히 좁아서 차량 1대가 지나가면 사람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주말 차량으로 굴다리를 지나는 길에 사람을 피하려다 접촉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른에게도 위험천만한 길을 우리 아이들은 매일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의 민낯입니다.

교육감님, 여러 가지 이유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청 고유업무인 학생 수용과 배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대전과 이웃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과밀학급으로 인해 지근거리 미배정 시 6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할 때, 중학교의 경우 3지망 배정으로 20명 이상 장거리 통학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명만 하고 있는 대전시 교육행정과는 사뭇 다른 타 자치단체의 교육행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대전시 교육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청의 학령인구감소 문제로 향후 교육행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일자리와 작은학교 등 교육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여 공동으로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수준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10월에 단 한 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되어야 할 업무를 1년에 단 한 번에 마칠 수 있다면 대전시와 교육청이 스마트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숙했던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전광역시와 협력체계 개선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의 어려움과 신·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교 쏠림현상, 다시 말해서 학생 안전 및 과밀·과소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종시 사례와 같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전시의 미래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님께서서는 전국체전 성적부진 대응방안, 전문체육 인재 육성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전국체전 성적부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전문체육인 육성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물어보셨고 또 전문체육 인재 육성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문체육인들의 운동 환경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 방안, 전문스포츠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김진오 의원님의 걱정만큼 우리 대전시가 전국체전에서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종합 11위였습니다만 2022년도에 15위로 한 단계씩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고 또 지금 3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체전에서는 금 같은 경우 거의 12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대전시 체육 인프라가 타 도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인재가, 상당히 인재 육성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고 또 세 번째는 대전시의 투자도 체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생각보다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전 전문체육인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고 또 전문체육지도자한테, 체육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체육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짜서 단계적으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족한 우리 체육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한밭운동장 같은 경우도 야구장을 지으려고 철거한 상황인데 본래 체육진흥법에는 광역시 안에는 반드시 종합운동장 1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대전시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체육진흥법도 상당 기간, 물론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밭운동장 같은 경우 철거하다 보니까 육상팀 같은 경우가 지금 훈련할 곳이 없어서 충남대 운동장이나 대전대학교 운동장을 애기고 있는데 대학과 같이 쓰면서 전문 엘리트체육인들이 제대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또 금년, 김진오 의원님께서 전국체전 순위가 이렇게 하락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단체팀, 농구, 하키, 펜싱, 스쿼시나 야구 또 역도나 양궁, 승마, 롤러, 근대5종, 카누, 당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큰 규모, 대기업이나 엘리트체육인을 운영하는 단체팀 이런 것들이 적고 또 나아가서 대전지역 대학에서 팀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또 실업팀도 부족하고 기초단체팀도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 기업, 실업팀 그리고 우리 5개 구의 구청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팀을 창단하고 또 대전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확보해서 대전 엘리트체육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대덕대 야구는 금년 11월에 아마 창단하게 될 것 같고요, 배재대 럭비, 대전체고 핸드볼 아마 내년 상반기쯤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 보니까 대전출신 국가대표선수들이 전북은행에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향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 제가 사실은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체육회에 얘기했는데 아마 용인시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연봉을 포함한 것이다 보니까 대전시체육회가 너무 과하다고 표현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빛낸 체육인들을, 엘리트체육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자치구 창단, 실업팀 창단 그리고 대전에 있는 19개 대학에 적극적으로 대학팀 창단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 5개 구에 창단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운동부 창단, 우수 선수 유출을 막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전체육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서 대전시민들에게 전문체육인들의 성공과 이런 것들이 대전시민의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인들, 구체적으로 운동 환경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을 대전이 하게 됩니다만, 좀 전에 대전에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아마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하기 전에 4개 시·도지사하고 체육회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이미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것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단지 가장 중요한 개막식이 있을 종합운동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학하동에 있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신속하게 해서 종합운동장 그리고 준비운동장 또 일부 생활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농구장 등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해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완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들어설 여러 가지 시설도 있습니다만 결국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5개 구의구청장님들과하고 상의하고 있고요, 5개 구에 각자 부족한 체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지 선정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5개 구도 독려하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토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도 균형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구 같으면 예를 들어 5개 구에 4면씩, 야구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원칙은 전국대회를 한 곳에서 치를 수 있을 만큼 체육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쓰면서, 지역에 숙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경기장들이 지금 대전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체육 인프라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에서도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중시추에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펜싱경기장을 포함한 아까 육상경기장,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펜싱경기장 같은 경우는 오상욱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전을 빛내는 정말 우수한 선수인데 지금 오상욱 선수가 현재 연습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펜싱경기장을 신축할까 해서 용운동에 있는 수영장 옆에 있는 일부 부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상욱 선수가 대전대학교 출신인데 대전대학교에다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주고 선수시설 및 시민들 개방을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도 교육감님과 잘 상의가 돼서 조만간 시도 예산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종합플랜을 짜고 그에 맞춰서 일관되게 시설 확충으로 가야 대전의 전문체육인들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플랜이 그려지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육성하는 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스포츠지도자 44명이 있습니다만 고등부에 16명, 대학부에 21명, 일반부에 7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문스포츠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맞게 처우개선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각보다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포인트 30만 원을 신설했고요, 교통수당을 금년에 15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는 관외여비를 6,400만 원 신규 편성했고 지도자들 동기부여를 위해 만약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김진오 의원님께서서는 교육행정 신뢰성 확보와 대전시와 협력체계 개선 및 통학차량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교육행정 사례를 포함하여 행정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 친수구역 등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대전시 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시설계획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해제를 결정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학교용지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학교용지 해제 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학교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적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소통, 협력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립단계부터 학생, 학부모,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전교육 공감원탁회의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등 정책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더 활성화하고 고견도 적극 수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협력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시는 대전교육행정협의회를 바탕으로 상호 간 교류협력으로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전미래교육 포럼, 대전교육정책공감원탁회의 등을 통해 제안하신 각종 의견에 대해 해결방안을 대전시와 함께 모색하는 등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통학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와 함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협의 시 개발지역과 학교 간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단계에서도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행정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배정 시 희망 및 근거리 배정을 통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학차량 지원 방안은 통학로와 대중교통 상황,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김진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